

Nr. 2024 - 05-06

승천



Licht und Salz

주님 승천 대축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편집부

5월 9일 목요일은 ‘Christi Himmelfahrt’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부활 제 6주간 목요일 이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순간을 기념하며 하느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로써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참된 소망의 기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역사를 기억하고 삶의 모든 시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은 이 약속을 새롭게 선포하는 순간이며, 하늘나라를 향한 길을 안내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실천 할 수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의미를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우며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동기를 부여 받은 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평소 주변 이웃이나 친구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을 구원 하기 위해 기꺼이 사람들 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쁜 일상은 잠시 덮어두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소중한 것들을 위해 생각 하고 걱정해주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5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월 28일 성 목요일 미사



3월 29일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 1

승천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

세레 소감 / 이원용, 노지연, 변혜인, 김미희

-

공소글 / 장유정 글라라

-

기고 / 김상균 안드레아



2024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설 (Neujahr)

3,4월 세레 (Taufe)

5,6월 승천 (Himmelfahrt)

7,8월 피정 (Exerzitien)

9,10월 수확 (Ernte)

11,12월 이웃 (Nachbar)



3월 29일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 2



3월 29일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 3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허광철 요셉 신부

부활절에 드리는 기도 - 피천득 詩 -

이 성스러운 부활절에 / 저희들의 믿음

이 /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 그 마

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부활시
기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부활하
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평
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원합
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
다." (1코린 15,14)

바오로 사도가 목청 높여 이야기하였
듯,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토대입니다. 부활신앙을 되새기며 저
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 미
사를 준비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
습니다. 그날의 강론을 부활의 메시지
로 여러분과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다
시금 부활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미사 부활 제3주일
강론 (4월 14일)

벌써 10년, 우리는 오늘 문명의 이기로
세월호 배가 가라앉은 모습을 시간별
로 생중계로 보았던 그 날을 기억한다.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느님은 도
대체 어디계시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멍하게 있었던 그 날을 기억한
다.

우리나라 역사상 2002년 월드컵 이후
로 온 국민이 하나의 마음이 된 시간이
세월호 참사의 그 날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딱 하루, 아니 하루도 지나지 않
아, 그날은 잊혀 졌고, 아니 망각을 강
요당했고, 세 번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세월호 아이들은 여전히 죽어있고, 그
들의 부모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제발' 왜 이런일이 일어 났는지 그것
만 알려달라고 울부짖는다, 다시 살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왜 이리 되
었는지 되돌아 보자고, 다시는 이런 일
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이여 나라여, '
제발' 마음을 모아달라고 아직도 항변
하고 있다.

하지만 망각을 강요하는 이들은 그들은 그만 잊으라고, 그만 이야기 하라고,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들은 정말 세월호 아이들이 죽었다고 만들어 버린다. 죽음을 확신하고 죽음을 따르는 그들이 벌이는 일은 매일 싸움이요 전쟁이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벌이는 것이 우리가 묵도하고 있는 오늘날 전쟁이고 테러이다. 결국 그들의 하느님은 죽음의 신, 마귀이다.

“아직도”, 이 단어가 오늘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더 안전한 나라, 함께 슬퍼하며 난관을 극복해 가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오늘 부활 제3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희생자들을, 아이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죽음은 다시 새롭게 살라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마음으로 ‘제발’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부활의 메시지이다, 내 몸이 소중하듯 다른 이들의 몸도 소중하니 ‘제발’ 곱게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인간존엄의 준엄한 명령을 꾸짖는 죽음이다. ‘제발’ 죽음의 신, 마귀들의 하느님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랑 때문에 먼저 죽을 수 있는 생명의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믿으라는 복음의 외침이다. ‘제발’ 그만 싸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또 다른 십자가

의 예수님 말씀이다.

결국 우리는 오늘 두 단어를 묵상한다. ‘아직도’, ‘제발’. 하지만 여기에 오늘 우리의 추모와 기억이 더 의미있어 지도록 한 단어를 더 추가해야 할 것이다. 바로 Trotzdem,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느님께서서는 여전히 인간을 연민하시며 기다려 주신다고 말이다. 죄와 고통과 죽음에 허덕이는 가련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싸안은 은총, 고통을 이겨내는 사랑,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절절히 믿는다고 말이다.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과 삶’의 복음적 메시지를 우리는 결코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 ■■■





3월 17일 미사 후 허광철 요셉 신부님 영명축일 행사 1



3월 17일 미사 후 허광철 요셉 신부님 영명축일 행사 2



3월 30일 부활성야미사 및 세례식 1



3월 30일 부활성야미사 및 세례식 2



3월 31일 부활미사 및 세례식 1



3월 31일 부활미사 및 세례식 2



3월 31일 부활미사 및 세례식 3



3월 31일 부활미사 및 세례식 4

삶의 단계

전영민 수산나

Jedem Anfang wohnt ein Zauber inne

모든 시작에는 아직 경험 하기전의 상황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짜릿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헤르만 헷세 (1877 - 1962 독일의 작가 노벨상 수상자) 는 이 짜릿한 호기심을 매력적인 힘이라고 찬양적인 표현을 하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시작을 시도한다. 헷세가 언급 한 것처럼 시작에는 항상 매혹적이고 짜릿한 것만은 아니라고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때로는 미지에 대한 불안으로 어떤 곤경스러운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헷세는 또 다시 다음 말에서 "이왕 시작하는것 과감하게 시도해봐 잘 될거야" 하며 달래는 듯 안심시키는 위로를 곁들여준다.

Der uns beschützt, und der uns hilft, zu leben 그 시도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조력해 주어 잘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했다. 이것을 단순히 조바심한 마음을 내려 놓으라는 위로의 말은 아니라고, 그보단 더 깊은 철

학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삶의 과정은 한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인생단계가 시작된다. 어느 삶의 단계나 세상을 사는 지혜와 고결함이 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시대정신은 우리를 조이고 묶어 놓으려 하지 않고 삶의 단계마다 한 발자국씩 들어 올려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과감하게 다음 단계를 맞이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예컨데, 삶의 부름에 따라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인 것이다. 화려하게 꽃피던 시절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시기가 온다. 그 열매는 땅에 떨어져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놀라운 자연의 질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헷세는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우리 인생에 비유 한 것이다. 사라져 가는 것은 또 다른 것들을 잉태 하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좀 비약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종착역 죽음은 영원속으로 몰아넣어 말살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엔 분명 새로운 시작이 있

다고 암시하고있는 것이다.

생사일여 -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어린 나이였을때 그 때가 얼마나 자유롭고 부모님의 보호만 받던 좋은 시기인 줄 몰랐다. 언제 내가 17이나 18살이 될까 하고 갈망 하였던 경험을 기억 할 것이다. 겨우 20세가 되면서는 30세의 나이는 노인이라고 생각 하였다. 40세는 전환점이다. 50세만 되면 거의 끝이라고 생각 하였지만 50을 넘고 나서는 스스로 젊음의 선을 넓히고 싶어하였다. 60이되면서는 그런대로 아직은 젊다고 애써 자신을 다독인다. 70세는 가련하고 비참한 나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70세가 넘으니 별로 비참 하지도 가련하지도 않다. 상 늙은이란 마음은 더더욱 없다. 이렇게 80세나 90세, 100세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 남는다고 해도 100세나 10세나 겨우 0 하나 차이로 들어가는 과정도 거기서 거기인듯, 속도로 볼때 크게 벌어진것이 아닌 것 처럼 느껴진다. 우리 삶의 단계는 이렇게 한 걸음씩 옮겨 놓으면서 새로운 단계에 대한 미지의 시간을 가슴 두드리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다.

Du kannst nicht immer siebzehn sein.

Liebling, das kannst du nicht.

Aber das Leben wird dir noch geben,

was es mit siebzehn dir verspricht.

당신은 항상 17살 일 수 없어요.

귀여운 여인이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삶이 당신에게 17살 나이에 원하는 것을

베풀거예요.

Einmal da wirst du siebzig sein.

Dann bin ich noch bei dir.

Denn du wirst immer, immer geliebt von

mir

먼 훗날 당신은 70살이 될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도 당신과 함께 있을거예요.

왜냐면 당신은 영원히, 영원히 나의 사랑을 받고

있을 테니까요.

Schau in den Spiegel, wie schön du bist.

Bist noch schön in den Jahren, wenn in

den Haaren Silber ist.

Freu dich mit mir auf die schöne Zeit.

Wenn der Sommer des Lebens Rosen der

Liebe streut

당신이 얼마나 멋진지 거울을 좀 보세요.

머리는 백발이지만 세월과 함께 당신은 더욱 아름답

다워졌어요.

인생의 전성기에 사랑의 장미가 뿌려지면,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나와 함께 즐겨요.

70년대에 유행했던 히트곡으로 이 테마에 맞는 텍스트라서 여기 옮겨 보았다. ■■■

세례 소감

이원용, 노지언, 변혜인, 김미희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이원용 마르첼리노

세례를 받기전에는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나.. 내가 자격이 있나 ..?" 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가득했습니다. " 하지만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그길을 안내해주신 신부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마치고나니 ,새로운 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용서 받았다는 생각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의 신앙은 이제 점점더 좋아질것이며, 주변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받은 은총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며, 그 사랑을 주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신자 교리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올리며. 🌈



노지언 파울라

무심함과 소심한 신앙으로 인해 많이 멀어져 있던 거리를 이제는 좁혀나가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동걸고 지치지 않게 저의 맞춤형 속도로 완주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세례준비를 위해 정성과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신부님과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컴플렉스가 많이 쌓여있던 시기에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의 큰 대모님 카타리나 자매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리도 느리지만 인내심으로 항상 주변을 살피주시며 견고한 성곽이 되어 주셔서 느린걸음으로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독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변혜인 첼리나

세례를 받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에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이런 선물을 받을 기회에 감사하며, 세례 후에는 더욱 깊은 신앙을 키워 가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 입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세례를 통해 받은 신앙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교회의 가족으로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것에 기대가 됩니다.

세례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



김미희 필로메나

저는 결혼할 때 비신자여서 세례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관면혼배로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마음의 부담은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세례를 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 했던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건 그 무엇보다 인성이 올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가끔씩 부모님들과 그런 얘기들을 하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아이는 올바르게 잘 자랄거다"라고 말씀해 주신게 언젠가부터 많이 와 달아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의 회사일로 인해 독일에 와 살게 되고 성당을 찾게 되면서 신부님을 뵈었고 신부님의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차츰 세례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지금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





레겐스부르크 공소 허인영 아녜스, 김미희 필로메나, 김현실 레지나 자매님이 그린 그림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20,1-3.7-8.12-17

그 부럽기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2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3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2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13 살인해서는 안 된다. 14 간음해서는 안 된다. 15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16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17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레겐스부르크 공소 미사 및 세례식 1



레겐스부르크 공소 미사 및 세례식 2

예수 승천 대축일

장유정 글라라 (에어랑엔 공동체)

예수 승천 대축일(Himmelfahrt)은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을 마치고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말씀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셨음을 의미하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것은 이별의 장면이 아니라 떠나심과 동시에 새롭게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라고 말한 것도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전 8년 전에 남편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 주재원으로 3년을 보내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연달아 막내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런 엄마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러셨듯이 타지에서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지낼 저만 걱정하셨고 그렇게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몇달 뒤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엄마에게 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지 않고 제 진심을 부수는 듯한 엄마의 표현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엄마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고 표현은 안했지만 독일에서의 갑갑한 상황으로 나만 힘들다고 생각한 제가 후회스럽고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안 좋아지신 엄마의 소식을 전해듣고선 전 많은 밤을 지새우며 혼자 울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일한 내 멘토이자 친구 그리고 스승을 잃은 것 같아 우울하고 죽을 거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몇년이 지나고 건강이 나아지신 엄마는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힘들어하지 말라고, 엄마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먼저 가있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죽음 이후의 슬픔과 허무함을 떨쳐내지 못하면 안된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엄마에게 의지하고 살아왔기에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돌아가심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저의 감정으로 이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늘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세상으로 나아가

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려고 해도
하늘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먹고 살기
도 힘든데 눈은 자꾸 세상 것들로 향할
것이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욕심을 가
려내어 비운 자리에 이 땅에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고, 오롯이
하늘만 바라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피하고 싶
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고 떠나고
싶은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이하는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

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그
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이 세상
에서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며 희망으로
의 믿음을 통해 차츰 하늘이 보이고 하
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될 때 오늘 사도
행전의 천사가 말하듯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늘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세상으로 나
가되 하늘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에어랑엔 공소 장유정 글라라

세월호 추모문

김상균 안드레아 (원헌 한인 성당 사목회장)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10주년 추모미사를 주관하는
원헌 한인성당 본당 사목회장 김상균
안드레아입니다.

우선 미사에 오신 신자분들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모임 회원 분들, 그외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추모미사를 위해 사목회장으로서 추모
글을 낭독해야겠다고, 해야한다고 정해
진 시점부터 매일 매일이 감정적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 나날들 이었습니
다. 아직 도 기억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다시 오롯이 새겨주는 세
월호 참사입니 다. 그런 기억을 더듬는
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으나 그를 통해
제 자신도 더욱 성숙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희생자들을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
그들을 기억하고 영혼을 위로하며 하늘
나라에서 편히 쉴수 있기를 기도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 장히 의미있는 순
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지난 시간들을 이자
리에서 나눔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희생

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1989년 단원구가 생기기전부터
현재 단원구 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와
동에서 살았으며 오늘날에도 부모님과
동생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안산시민
이자 단 원구민입니다. 제 늦둥이 친동
생은 2012년에 단원고등학교를 졸업
한 학생으로 참 사 당시 군복무 중에 공
부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들과 후배들
의 참사소식을 접하 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시 단원구의 성당인 와
동 일치의모후 성당에서 전례부 를 담
당하고 계셨는데, 전례부원 중에는 세
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실제
참사에 희생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당시 성당에서는 학생들이
하나 둘씩 물밑에서 올라와 장례미사가
계속 이어졌는데, 어머니는 매주 여러
건의 장 례미사에 참석하시어 해설 봉
사를 하셨고 이후 정신적 스크레스로
상담이 필요하 신 상황이 되셨었습니
다.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환경 때문에 세
월호 참사는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정말
남 의 일이 아닌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제가 관련된 일이 아닐 수 없었고, 매일 었습니다.

쏟아지는 언론 보도와 부조리한 사형의 상황을 목도하며 아픔을 피할 길이 없는 일 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2달 뒤에는 제 결혼식이 예정되어있었고 결혼을 위해 한 국에 돌아가 마주한 현실을 언론보도 나 주변에 들은 상황보다 훨씬 참혹하였 습니 다. 운동네가 상중이기 때문에 거리 에는 인적이 드물고 웃음소리 하나들리 지 않 았으며 가게들은 문을 닫고 애도하 는 분위기만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절대 잊혀 지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결 혼식날 당일 아침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 고 있 는데 바로 뒷집에서 들려오는 기괴 한 소리를 들었던 일입니다. 끊어질 듯이 끊어 지지 않고 이어지며 우는 것도, 고 통스러워하는 것도 같은 그 소리는 제가 딱 한 번 6살 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삼촌의 사망 사고 소식을 듣고 제 친할머 니께 서 내셨던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비통하고 비참한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 간이 아 마 세월호 사건을 경험해야만 했 던 많은 이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로도 세월호와 관련된 일은 많은 분들에게 그러하듯이 저에게도 진행중입 니다. 당장 올해 3월에도 한국으로 출장 을 간김에 저녁회식후 본가로 가는 길에 지하철 역에서 집으로 걸어 갔는데, 그때 예전 안산 교육청 자리에 마련되어있는 세월호 기억 교실을 지나치며 희생자들 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었습 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주는 의미를 제 안에 다시 새기는 순간 역시 갖게 되

첫번째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치부와 추악한 현실에 희생당한 수많은 목숨들 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제 자신도 과연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 고 있었는지, 부당한 일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고 고쳐나갈 의지가 있었는지 되돌 아보면,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 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 면서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하며 미안한 마음을 속 제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그러한 희생에 대한 고마움 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사실, 아니 모르고 부정하려고 했던 현실에 대해서 아프게 깨닫게 해주었고, 그래서 변해야한다는 것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희 생하고 더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수많은 부조리 와 부당한 대처, 책임 회피 등에서도 많 은 설성님들과 일부 승무원들이 그러했 듯이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본인 을 희생하고 다시 배로 뛰어든 그 수많은 용기, 죽음을 각오하는 자세에서 많은 것 들을 배우며 그것들을 다시 가슴 속에 새 겨준 희생자들과 의인들에게 깊은 감사 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서 없이 길었던 추모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어 떻게 살아가야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분노하지 않고, 우리의 삶 동안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이들을 기억

하며 살아가되 그들 생각에 마냥 고통스 그들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러워하지만 말자는 것입니다. 지난 한달
간, 마침 사순절시기와 부활의 기쁨을 맞 마지막으로 천주교 서울 대교구 정의평
는 시기에 주옥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며 화원회에서 2014년 세월호 희생자를 위
묵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한 끝 한 기도문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 들려드
에 나온 답입니다. 분노하고 고통스러워 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지 말고 희생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
운 마음을 갖고 해야할 일들을 해나가며

오! 주님, 이 절망 앞에서 희망을 보라 하십니까?

이 어둠속에서 빛을 보라 하십니까?

하루 하루 분노와 절망의 줄타기 속에서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나이다.

부디 더 이상 절망과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 어 주소서.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 분노하시던 주님처럼 저희도 용기를 내어 정의의 이룩하는 예언자 소명을

살게 하소서.

그것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소명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4월 14일 세월호 참사 10주년 추도 미사 1



4월 14일 세월호 참사 10주년 추도 미사 2



4월 14일 세월호 참사 10주년 추도 미사 3



4월 14일 세월호 참사 10주년 추도 미사 4

2024년 바이에른 가톨릭 한인 공동체 연합 피정 안내

- 일시: 10월 4일(금) 17시 - 6일(주일) 13시
- 장소: Diözesanhaus Vierzehnheiligen
(Vierzehnheiligen 9, 96231 Bad Staffelstein)
- 주제: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시편 108,1)
- 참가비: 1인당 100 유로(청년: 80 유로)
- 참가신청: 3월 31일 까지, 각 공동체별로 신청

바이에른 4개의 공동체(뮌헨,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뷔르츠부르크, 레겐스부르크)가 함께 모여 피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미하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정(避靜)이란 피세정념(避世靜念), '일상/세상을 피해 고요히 생각한다, 고요함에 머문다'는 뜻으로 '하느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참가비 설명: 원래 소요비용은 2인실 기준 1인당 163.8유로(숙소 2박 107.8유로 + 식비 4식 51.8유로)이나 뮌헨 교구의 지원과 찬조(Spende)를 받아 보충하는 것으로 하여 위 금액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인실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신청비에 20유로가 추가됩니다.
(원금액: 1인실 기준 1인당 183.8유로)
- ⇒ 신청자가 확정된 이 후 일정과 세부사항(차량이동, 준비물 등)에 대해서는 각 공동체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신청자격은 15세 이상이지만, 혹 15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참가하기를 원하시면 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아이들의 참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주일 미사 안내

뮌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름부르크 공동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erweg 6A, 93051 Regensburg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 편집부

김수연 아가타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